



◆앞줄 오른쪽부터 4번째 동경조합이사장, 5번째 고수곤 서울조합이사장, 6번째 필자.

동경조합, 조합원 살리기 '2005 프로젝트' 운영

서울시인쇄정보조합(이사장 고수곤)은 업계 공동발전 및 수출촉진, 서울인쇄센터 발전을 위한 자료 수집을 위해 12월 4일부터 7일까지 일본에 시장조사단을 파견했다.

이번 조사단은 분과위원회별로 자료 수집을 위해 집행부에서 고수곤이사장 노주현감사 이소현상무를 비롯 3분과위원회 조정석 조재환 한용근사장, 원가계산위원회 홍우동 김영길 이창래사장, 기능인력양성위원회 이순석 이달수사장, 서울인쇄센터 정용식 이광재 리우식사장 박준규센터장, 수출시장개척 최유수 최기환 김영선 소근용사장, 회관운영 남상진 김건국사장 등 총 21명으로 구성되었다.

조사단은 방문 첫날인 4일 일본인쇄기술협회를 방문, 일본 인쇄계의 현황을 청취하고 양단체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5일에는 동경인쇄조합과 돗판인쇄박물관을 방문한 후 동경 소재의 인쇄업체들을 둘러 보았다.

6일에는 돗판인쇄주식회사를 방문하여 생산 현황과 신기술 등에 대해 자료를 수집했다.

조사단은 귀국후 분과위원회별로 방문 결과를 정리하여 인쇄조합 및 업계 공동발전 방안, 수출진흥방안, 서울인쇄센터 운영방안, 인쇄단체 조직개편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다음은 시찰단으로 참가한 한용근 금영문화사사장의 시찰기이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일본 방문을 여러 차례 했어도 갈 때마다 새삼스럽게 느끼는 것은 급변하는 일본의 모습에 우리의 미래를 보는 착각에 젖는다는 것이다. 일본은 1억명이 넘는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단계에 들어서 있다. 부부가 2명의 자녀를 두어도 사고사망 등으로 인해 평균인구를 지탱하지 못하는데 지금 일본은 부부가 1.3명을 출산하는데 그치고 있으니 앞으로 일본의 인구는 점점 줄어들 것이 자명하다. 이런 불안한 미래 속에 경제상황은 또 어떤가? 부동산 가격은 해마다 하락하고 기업은 날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엄청난 기업이 도산해 실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오죽하면 지난해 월급 그대로만 받으면 건실한 회사라고 할까.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소비는 줄고 유통은 쪼그라들어 내수시장 경기는 더욱 악화되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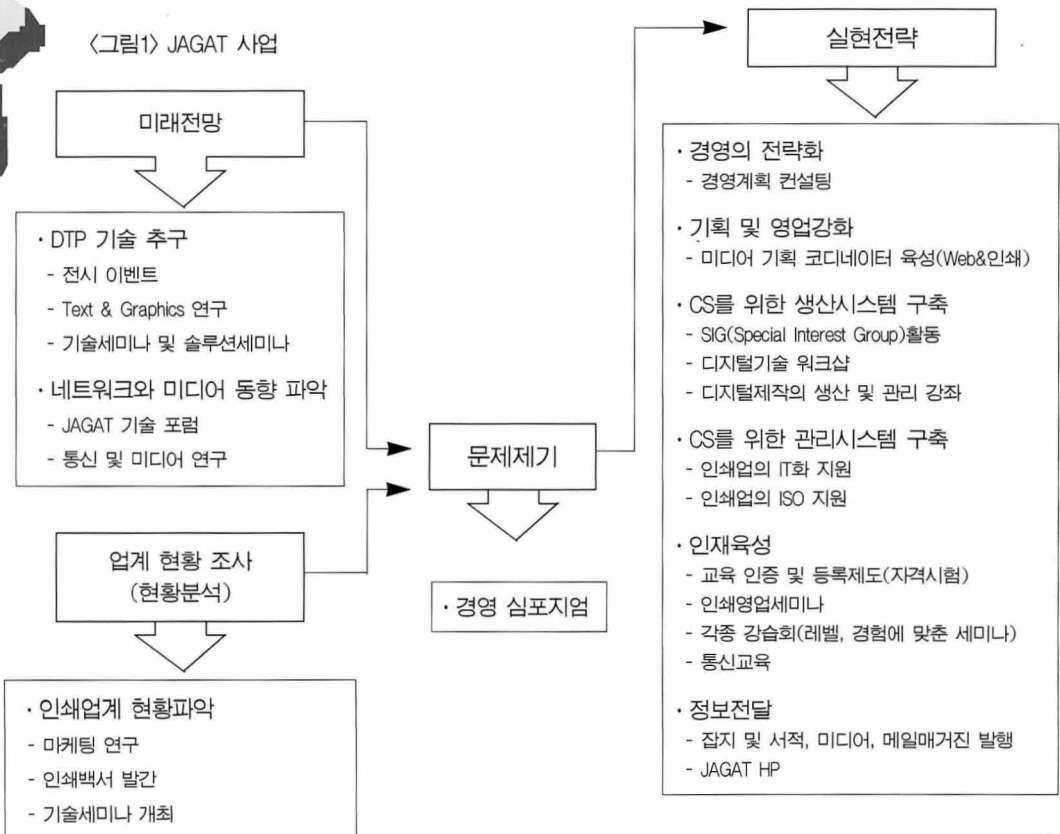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관광지에 위락시설이나 모텔, 콘도를 짓는 등 투자를 늘리는 반면 일본은 과거에 지었던 위락시설, 숙박시설 등을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헐고 있다. 그렇다고 일본이 금방 어떻게 된다는 것은 아니다. 국민들이 은행에 예금한 금액이 총 1,300조엔이나 된다고 하니 어마어마한 금액을 국민들과 나라가 가지고 있는 셈이다.

일본인쇄기술협회

첫날 우리 일행은 일본인쇄기술협회를 방문하였다. 기술협회 이와노전무의 안내로 기술협회에 대한 브리핑을 받은 후 좌담회에 들어갔다. 브리핑에서는 JAGAT의 사업컨셉(그림 1), 인쇄단체의 조직구성, 임원진들의 선출방식, 2001년 사업비율, 일본인쇄업계의 동향(표1), 앞으로의 추세, 인쇄원가계산방법, 덤핑 방지 연구책, 기능인력 양성 등의 자료를 교환했다.

모든 자료는 인쇄물로 제공받았다. 그 중 한 가지 특이할 사항은 기능공 양성인데 일

〈그림1〉 JAGAT 사업



일본 기술협회의 실습장면.



“일본에서는 기계제작회사에서 자사기계를 팔기 위해 자사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공을 양성한다고 한다. 외국기계 역시 일본 대리점에서 기능공훈련을 실시해 공급한다. 그리고 국가가 인증하는 인쇄기능사 자격증 제도가 있어 1급, 2급 자격증을 수여하고 있다”

〈표1〉 일본 출하액 추이

(단위 : 억엔, %)

		2000년 상반기	2000년 하반기	2000년 전체	2001년 상반기	2001년 하반기	2001년 전체
상장인쇄기업(23사)	금액(백만엔)	12,915	13,704	26,619	13,005	13,135	26,139
	전년대비(%)	4.7	4.7	4.7	0.7	-4.2	-1.8
중소인쇄기업	금액(백만엔)	26,149	28,974	55,122	26,123	28,118	54,241
	전년대비(%)	1.0	2.0	1.5	-0.1	-3.0	-1.6
인쇄산업(계)	금액(백만엔)	39,064	42,678	81,741	39,128	41,253	80,380
	전년대비(%)	2.1	2.7	2.4	0.2	-3.3	-1.7

본에서는 기계제작회사에서 자사기계를 팔기 위해 자사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공을 양성한다는 것이다. 외국기계 역시 일본 대리점에서 기능공훈련을 실시해 공급한다고 한다. 그리고 국가가 인증하는 인쇄기능사 자격증 제도가 있어 1급, 2급 자격증을 수여하고 있다.

JAGAT의 사업은 업계 현황분석을 통해 미래를 전망하는 한편, 이에 대한 실행전략을 세워 구체화하고 있으며, 수입원은 강습회(19.7%), 전시(18.8%), 출판(16.3%), 회비(15.2%), 교육(13.5%), 연구조사(6.7%), 통신교육(4.9%), 컨설팅(2.9%), 기타(2.0%)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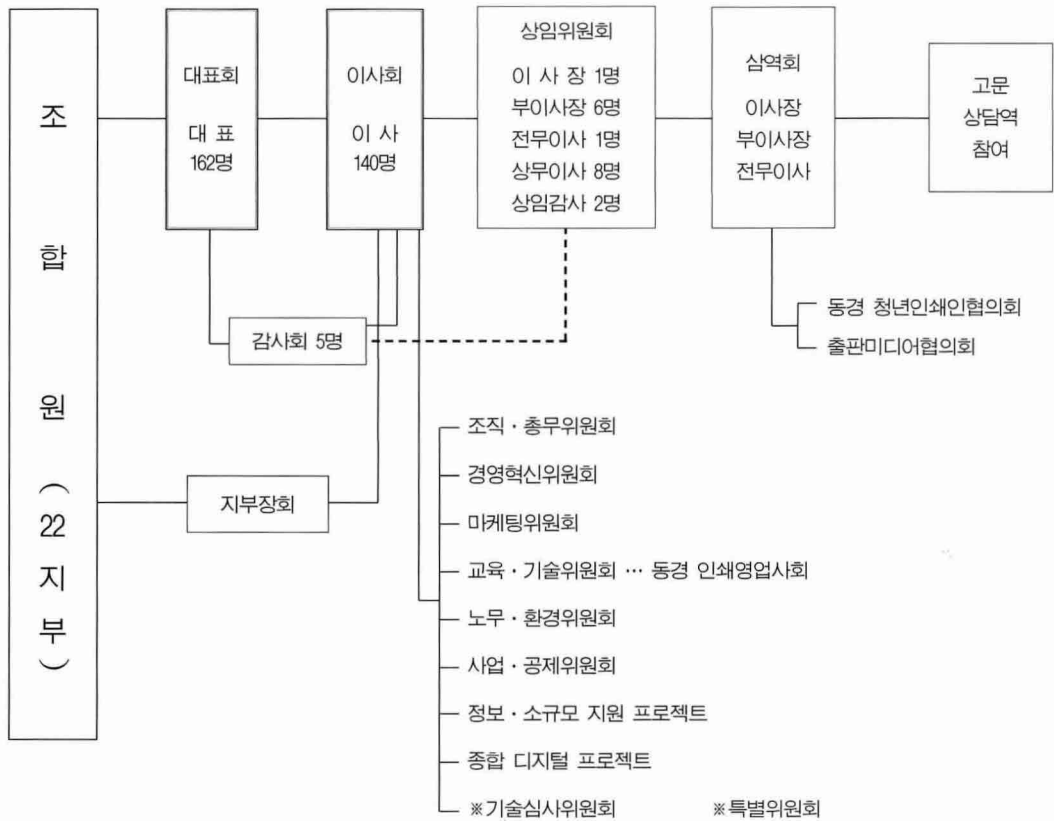
JAGAT의 회원은 출판정보처리업(1,200사), 메이커 딜러(800사), 일본그래픽서비스공업회 산하 기업(1,700사), 일본그래픽커뮤니케이션즈공업조합연합회 산하 기업(800사), 인쇄공업회 산하 기업(110사), 전일본인쇄공업조합연합회 산하 기업(9,410사) 중 1,224사가 가입돼 있다.

동경인쇄조합

방문 둘째날, 우리 일행은 도쿄 중앙구 신부정에 위치한 깨끗하고 아담한 동경인쇄조합에 도착했다. 10시 정각에 도착하니 동경조합 임직원들이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 줬다. 현수막에 ‘한·일간 인쇄 산업발전 정보 교환 협의회’라는 명칭이 붙어 있어 기분이 매우 좋았다. 한·일이라고 한국을 먼저 넣은 호칭 때문이었다. 회의실에 도착한 우리 일행들은 또 한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인쇄 출판 관련 언론사 6개사의 취재진들이 양국간의 회의를 열면 경쟁 속에 취재하고 있었다.

일본에서는 인쇄출판업계를 합쳐 호칭함에 있어 항상 인쇄를 먼저 호칭한다는 사실을 보고 일본은 출판보다 인쇄를 더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양국간의 상호협력 및 기술 제휴는 물론 국제 교

〈그림2〉 2002년도 동경인쇄조합 구성·사업 운영기구



일본 기술협회에서 일본 인쇄업계 현황을 듣고 있는 서울조합 시찰단.



한·일조합 대표가 선물교환을 하고 있는 모습.

류를 맺자는 구두 상의 합의가 이뤄졌음은 물론, 동경 인쇄업계의 모든 현황을 자세하게 브리핑 받았다.

일본인쇄기술협회 내용과 거의 같은 상황이었으나 동경의 인쇄업체 수가 5,000여개사가 있는 중에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은 2,000여개사 밖에 안되며 연간 1조엔 이상 매출하는 업체는 2개사가 있는데 조합에는 가입하지 않았다고 한다.

1개사는 주로 출판 잡지 등을 인쇄하는 곳이며 나머지 1개사는 상업인쇄(카탈로그 등 광고)를 전문으로 하는 곳이라고 한다. 조합에 가입한 2,000여개사 중에서도 8색 윤전기를 가동하는 회사는 그나마 정상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나머지 조합원 중에서도 25%만 정상적인 수입을 올리는 업체들이고 나머지 75% 정도는 현상유지도 힘들 정도이며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니 일본 인쇄업계도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임원진 구성을 보면 이사장 1명과 부이사장 6명 및 다른 임원으로 구성돼 있다. 동경조합 이사장이 전국조합연합회 이사장을 자동으로 겸임하게 되어 있고 부이사장 6명이 각각 채무, 사업, 노무, 기술,

영업 등등 각기 다른 분야별로 책임을 맡고 있다. 임원 선출 방법은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한다고 하는데 차기 이사장은 원로들과 고문들이 협의하에 결정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그림 2)

조합을 통한 단체수의계약 제도는 없고 일반 경쟁입찰 또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입찰로 관공서 일을 수주하며 어느 관서의 일은 우리것이라고 연고를 주장할 수도 없다고 한다.

개인거래처는 상호간 서로 아는 사람들과 거래를 하여 신의로서 웬만하면 거래처를 옮기지 않는다.

그래서 동경조합원들 사이에서도 워낙 경쟁이 심하고 덤핑행위가 자주 발생해 업자간의 제살 깎아 먹기가 심해 단합된 조합을 만들고 다시 태어나기 위해 다각도로 '조합원 살리기 2005년 프로젝트' 연구를 한다고 한다. 자유경쟁 체제하에 발생하는 모든 상황은 우리나라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으며 결국 일본이라는 타국이라 할 지라도 같은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고민거리의 같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빠른 시일안에 조합의 실무진을 구성하여 양 국가간 인쇄정보 교환 및 국제교류 사항을 협의한 후 정식 조인하기로 합의하고 동경조합을 나왔다.

돗판인쇄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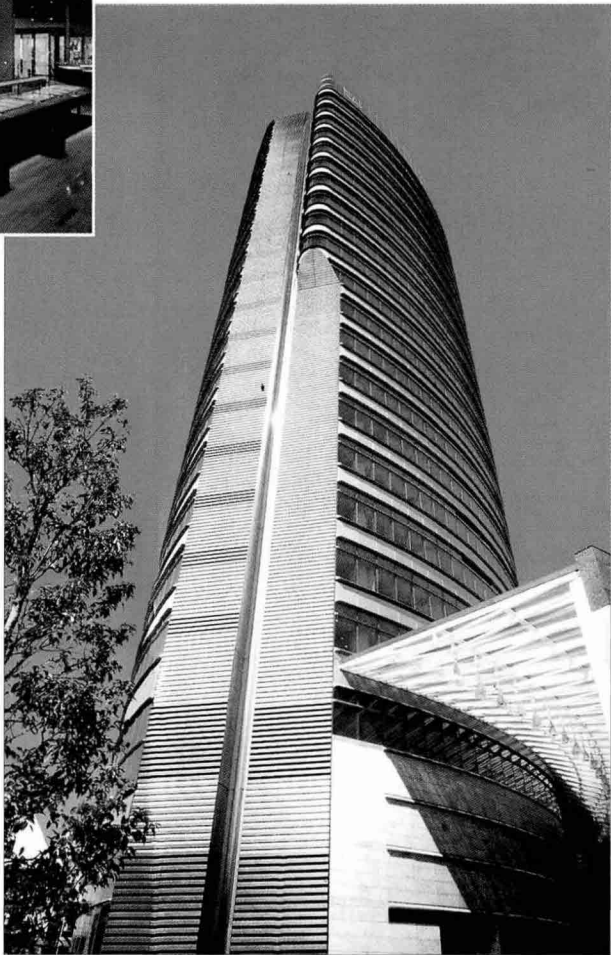
오후에는 돗판인쇄박물관을 방문했다. 돗판인쇄박물관은 커뮤니케이션·미디어로서의 인쇄 가치나 가능성을 소개하고, 인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



돗판인쇄박물관 외관과 내부모습.

되었다. 인쇄박물관은 도쿄(東京)의 돗판코이시카와(小石川)빌딩과 함께 있으며, 지하 1층과 지상 1·2층을 사용하고 있다.

지하 1층은 인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알기 쉽게 알리기 위해 프롤로그전시장(느끼다 : 감각), 기확전시장(발견하다 : 발견), 종합전시장(이해하다 : 이해), 인쇄공방(만들다 : 창조) 등 4개 전시장과 4가지 키워드를 바탕으로 전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인쇄의 여러 가지 모습을 소개하고, 또 5시간 가까이 소요되는 영상에 의한 전시정보시스템이나 인쇄공방에서의 활동모습 전시 등 새로운 전시방법도 활용하고 있다. 지상 1층은 그래픽 중심의 음악홀(돗판홀)과 전람회나 이벤트를 개최하는 다목적 갤러리(P & P 갤러리) 그리고 인쇄관련 도서나 잡지를 검색·관람할 수 있는 정보코너와 도서관이 있으며, 2층에는 카페와 레스토랑이 있다.



모든 것은 우리 박물관과 다를 것이 없었고 더 좋은 건물에 더 좋은 시설의 박물관이라고 생각했는데 한쪽에 활판조판시설을 그대로 둔 것을 보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내가 10년 전에 청주고인쇄박물관을 건립한다고 했을 때 인쇄협회를 통해 문선, 식자, 주조, 정판, 활판기 등등 모든 시설을 현상태 그대로 보관하여 박물관을 꾸미자고 제의했으나 납값 및 운반비 등 예산상의 문제로 청주 고인쇄박물관에 설치하지 못한 것이 매우 가슴 아팠다.

돗판박물관의 그 시설을 보니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만 보다 나왔다. 최초의

기능인력, 기계공급사가 책임 서울조합, 동경조합과 교류 합의

금속활자 발명국인 한국에는 없는 시설이 일본에 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자모 몇 개와 활자일부, 제판기기 몇점을 갖추고 무슨 최초의 금속활자 종주국이라니...

지금도 늦지 않았다. 우리도 빨리 그런 시설을 박물관에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뿐이다. 일본 사람들은 우리보다 돈이 많으면서도 일반 생활에서 고급승용차, 고급 저택, 고급 술집 등 고급 유흥 따위에는 빠져들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런 쪽에는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일본 사람들은 업무를 볼 때도 작은 승용차를 이용하며 조합 및 협회 사무실의 책상, 집기, 응접세트 등도 모두 평범하며 그저 실용적인 것들이다. 전무, 상무실도 없고 작은 사무실에 직원들과 같은 책상을 쓰고 있다. 하긴 전에 일본 수상도 17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니 앞으로 우리 인쇄업계 대표자들도 허세만 부리지 말고 겸허한 마음으로 절약하며 살아야 하겠다는 마음 가짐을 단단히 해야 하겠다. 일본인들은 인쇄 박물관 등 문화유산에 쓰는 돈은 기업주들이 아끼지 않고 투자하면서 일상 자기 생활에는 절약하는 모습을 보고 쓸쓸한 마음으로 박물관을 나왔다.

돗판인쇄사

방문 셋째날, 돗판인쇄사를 방문하였다. 곳곳에 있는 돗판인쇄 공장 중 그라비아 운전, 오프셋 운전, 활판운전(단색인쇄) 중철 및 무선 제본 시설이 있는 곳을 방문하였는데, 제판 쪽이나 CTP와 관계된 중요한 첨단 시설 쪽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으나 평범하고 보여주기 쉬운 쪽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 기분이 언짢았다. 하지만 브리핑 시간에 너무나 성의껏 답변해 주는 바람에 언짢은 마음은 가라앉았다. 그곳의 기능공 인력 양성은 앞서 설명한대로 주로 기계 제작사에서 배출한다. 공장 자체에

서 매년 4월에 사원을 모집하여 자체 기능공을 양성하는 방법으로 기능공을 충당한다고 한다.

그 이유는 3월에 모든 학교 학기가 끝나기 때문이다. 다른 공장 기술자 스카우트는 전혀 없으며 1년 동안의 이직률 및 퇴사자는 5%정도 된다고 한다. 모든 시설이 자동화되어 있으며, 근로자 정년은 60세인데 주로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근로자가 많고 50~60대 기능공이 많은 편이었다. 아주 간단한 작업은 동네 아주머니를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그라비아 및 오프셋 운전의 용지 손지율은 6% 정도이며 단색 운전은 3% 정도라고 한다. 1900년 창업한 돗판인쇄는 정보, 생활, 문화와 인쇄를 결부시켜 인쇄의 기술과 노하우를 고도로 발전시켜 왔다.

사업분야는 증권 및 카드, 상업인쇄, 출판인쇄, 패키지, 산업자재, 전자, 멀티미디어, 화학, 물류, E-비즈니스 등이며, 현재 일본 국내에 11개 사업본부와 57개 영업소, 30개 공장과 해외에 20여개 분사 및 현지 법인을 두고 있다.

〈한용근·금융문화사 대표〉

